

# 고환율에 지역경제 ‘휘청’…대응 전략 시급하다

## 광주경총, 경제 영향 점검…서민가계·자영업 부담 가중 제조·내수 전반에 비용 압박 확대·환율 변동성 관리를

지역 경제계에서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흐름 속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전반과 서민가계, 자영업에는 부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

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환율 흐름과 관련한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한 결과,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경기 전망에서 고환율과 환율 변동성을 핵심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식했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와 안정적인 경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수출 비중이 있는 중견·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단기적인 수출 단가 경쟁력은 개선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압박받는 구조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환율 효과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원가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재·에너지·물류 비용 측면에서도

고환율의 부담은 뚜렷하다. 철강과 식품 등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환차손과 영업이익의 감소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과 연동된 운송·물류 비용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유통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민가계와 자영업 부문에서는 체감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수입 식재료와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밥상 물

가와 외식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총은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 구매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내수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 경제와 고용 구조 측면에서는 고환율·수출 호조·내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고환율의 영향이 수입 식재료와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밥상 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업종과 내수 업종 간 경기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환변동 보험 활용, 수입선 다변화, 재고 전략 등으로 기업의 환율 변동성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원자재·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과 수출기업 금융·마케팅 지원, 취약계층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해 지역 경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사)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과 지역 학계, 기관, 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3주년 기념식 및 제273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 “산학협동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 한국산학협동연구 창립 23주년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원장 양승학)은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과 지역 학계, 기관, 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3주년 기념식 및 제273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 연구원 설립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축하메세지 절단식, 카운트다운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

역, 전남대의 AI대전환’ 주제 강연으로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지역의 학계와 업계, 유관기관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공동목표를 위해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다.

회원 스스로의 힘으로 회원 간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산학협동포럼을 비롯해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같은 산학협동세미나, 경영자·임직원 교육훈련, 맞춤형 사원위탁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 특허출원 등 교육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 제조업, AI 전환은 ‘공감’…도입은 ‘글쎄’

### 광주인자위, 지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조사 전문인력·비용 부담…자금 지원 중심 정책 요구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기 투자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실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일정 수준 진전됐지만 AI 전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주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실태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 AI와 제조업의 융합(AI) 정책에 맞춰 지역 제조업체들의 실제 AI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인력양성 훈련과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디지털 전환(DX)의 경우 응답 기

업의 29.5%가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 중이라고 답했고 23.2%는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절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47.3%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기업 간 격차도 확인됐다.

반면 인공지능 전환(AI)은 도입 수준이 한층 더 낮았다.

AI를 실제 활용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6.3%에 그쳤고 도입을 계획 중이라는 응답도 14.0%에 불과했다. 전체의 79.7%는 AI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혀 지역 제조업 전반에서 AI에 대한 관심과 준비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AI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초기 투자·구축 비용 부담’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부 전문 인력과 활용 역량, 전담 조직 부족’(18.8%), ‘인프라 호환과 데이터 축적, 표준화 미흡’(15.5%) 등이 주요 애로 요인

으로 꼽혔다.

AI 관련 인력 수요와 교육 수요는 생산과 품질 분야에 집중됐다.

분야별 AI 인력 채용 의사는 생산·생산관리(25.1%), 품질·연구개발(21.7%), 경영관리(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AI 교육 참여 의사 역시 생산·생산관리(23.0%)와 품질·연구개발(21.6%)이 가장 높았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AI 기술 지원 형태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응답이 많았다. ‘시스템 개발 및 API·ERP·MES·WMS 연계 통합’이 28.6%로 가장 높았고, ‘현황 진단·로드맵·ROI 설계 등 컨설팅’(22.3%), ‘유지보수·레퍼런스 공유·보조금·바우처 연계’(19.4%)가 뒤를 이었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는 자금 지원에 집중됐다. 응답 기업의 74.0%가 AI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유형으로 자금 지원을 꼽았고, 기술 지원(9.3%), 금융 지원(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야 AI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SKT-남구가족센터, 취약가정 아동 디지털 환경 개선 ‘맞손’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스마트폰·통신비 지원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과 남구가족센터가 취약가정 아동의 ICT 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 서부마케팅과 광주시 남구가족센터는 21일 취약가정 아동의 ICT 환경 개선과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이동통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서부마케팅 담당 하명복 담당과 남구가족센터 장미영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구가족센터가 관리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월 이용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은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하고 함께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구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위탁기관으로, 다문화가족과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 교육과 취업 지원,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돌봄 및 맞춤형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구가족센터가 관리하는 지원 대상은 약 7만5000명에 이른다.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ICT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미영 남구가족센터 센터장은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통신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광남일보